

현장시선



강 동 훈
제주도관광협회장

여행의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유명 관광지를 얼마나 많이 둘러봤는지가 중요한 여행의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그 지역의 삶과 문화를 얼마나 깊이 경험했는지가 여행의 가치를 결정하는 시대가 됐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를 넘어 '어떻게 경험하느냐'를 중시하는 미식여행이 새로운 관광 트렌드가 되고 있다.

제주 역시 아름다운 자연뿐만 아니라 음식이라는 소중한 관광자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주의 음식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적박

제주미(味)행, 음식에 담긴 제주를 여행하다

한 자연환경 속에서 살아온 제주 사람들의 지혜와 공동체 문화, 그리고 섬의 역사와 생활방식이 담긴 문화유산이다. 각재국국, 고사리국 개장, 묵국, 방떡, 돔베고기와 같은 향토음식은 제주만의 이야기를 품은 소중한 관광 콘텐츠이기도 하다.

그동안 제주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은 유명 맛집을 찾는 데 집중했지만, 제주 사람들이 어떤 식재료를 먹고 어떻게 음식을 만들어 왔으며, 그 안에 어떤 문화와 역사가 담겨있는지를 경험할 기회는 많지 않았다. 제주관광도 자연경관 중심을 넘어 지역의 문화와 생활을 함께 경험하는 콘텐츠를 확대해야 할 시점이다. 이제는 제주 음식을 단순히 '먹는 관광'에서 벗어나 직접 만들고 배우며 지역문화를 이해하는 '체험형 미식관광'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관광협회는 올해 처음으로 '제주미(味)행'을 추진하고 있다. 관광객이 전통시장에서 제철 식재료를 직접 구입하고, 향토음식 명인과 지역 전문가의 설명을 들으며 제주 음식을 만들어 보는 관광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관광객이 단순한 소비자가 아닌 참여자가 된다는 점이다. 전통시장에서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제주산 제철 식재료를 직접 고르며, 향토음식을 만들어 보는 과정에서 제주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된다. 또한 계절별 제철 식재료와 향토음식은 물론 전통주, 발효음식, 해녀문화, 낭포밥상 등 제주만의 다양한 식문화를 통해 제주의 자연과 역사, 생활문화를 함께 이해하는 여행이 된다. 더불어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 농수축산물

소비를 활성화해 지역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제주의 미래 관광은 더 이상 풍경만으로 경쟁하기 어려운 시대를 맞고 있다. 제주만이 가진 이야기와 문화, 사람들의 삶을 관광 콘텐츠로 연결하는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 그 중심에는 음식이 있다. 음식은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문화이며, 지역을 가장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매개체이기 때문이다.

제주에는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은 훌륭한 향토음식과 식문화가 많이 남아 있다. 올해 첫집음을 내디딘 '제주미(味)행'이 제주의 숨은 식문화를 널리 알리고, 체류시간과 지역 소비를 늘리는 것은 물론, 제주의 관광이 자연을 넘어 문화와 삶을 경험하는 여행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사설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지' 가능, 만시지탄

그동안 많은 논란을 빚었던 제주투자진흥지구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정 해지 제도 도입된다.

제주도는 최근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투자진흥지구 사업장의 투자계획이 전부 이행되고 지정 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도지사가 투자자 신청이나 직권으로 지구 지정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해지는 기업이 투자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세제감면액 환수 등 불이익을 받는 해제와는 별개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투자를 완료해도 지구 지정 해지를 할 수 없어 신규 사업 투자의 걸림돌이 됐다. 조례가 개정되면 기업들은 업종 변경으로 신규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투자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행정당국의 관리·감독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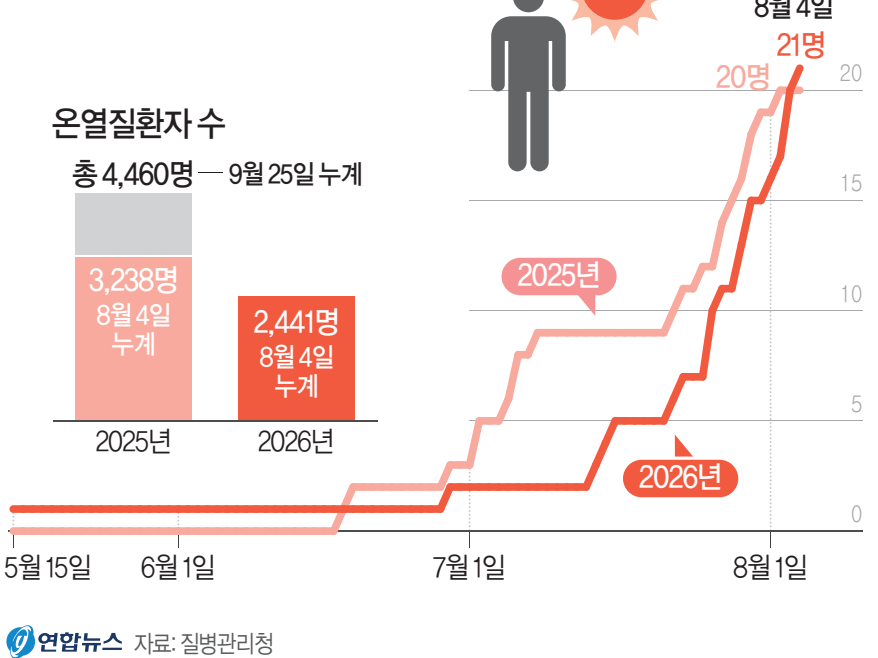
받아야 하는 부담도 사라진다. 제주도는 이에 앞서 2020년 투자진흥지구 사업장 '먹튀' 논란과 관련해 지구 지정일로부터 5년 이내 투자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정 해제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지구 지정 후 세제감면 혜택만 받고 투자는 하지 않거나 사업기간만 연장하면서 지가상승에 따른 차익을 노리는 암채 사업장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투자진흥지구 지정 제도는 국내의 자본 유치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2년 도입됐다. 제주도는 조례가 개정되면 투자계획을 완료한 사업장에 대해 지구 지정을 해지하고 신규 사업 투자를 적극 유치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또 지구 지정익을 창출하고 투자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행정당국의 관리·감독을

그래픽 뉴스

온열질환자 사망자 수 추이

연도별 5월 15일~8월 4일 누계 기준



열린마당

을묘왜변 제주대첩 단상



홍 기 표
문학박사·역사학자

1555년(명종 10) 5월 왜구는 70여척의 배를 거느리고 전라남도 남해안 일대를 침략하며 을묘왜변을 일으켰다. 제주 을묘왜변은 조선 시대에 들어와 처음 겪는 대규모 외적의 침입이었고, 제주민은 이를 대첩으로 이끌어 시련을 극복했다. 이는 비단 제주만의 승리가 아니었고, 조선 을묘왜변의 최종적 승리로 귀결한다. 그뿐만 아니라 을묘왜변 제주대첩은 일본과 한반도 및 중국과 연결되는 해상 요충지 제주를 왜구로부터 지켜냈다는 점에서 동아시아

야 평화 정착에 기여한 바가 크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제공하는 '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을묘왜변' 해설에는 그동안 '제주의 대첩' 사실이 빠져 있었다. 그런데 올해 7월 드디어 제주대첩 사실이 해설 말미에 수록됐다.

'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제주의 역사적 사실'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은 여러 기관에서 펼쳐왔다. 필자도 이 작업에 참여해 역할을 다해왔다. 그럼에도 을묘왜변 제주대첩의 사실을 수록시켜야 한다는 당위성 때문에 무거운 압박감이 남아 있었다.

이 작업을 제주도청 문화정책과 역사정립팀장과 주무관 및 소속 학예사가 이루었다. 이들이 관련 논문과 역사적 사료를 취합해 정리한 뒤 한국학중앙연구원에 공문을 보냈고, 해당 집필자는 이 사실을 을묘왜변 해설에 추가했다. 제주도청 해당 공무원의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첨단과기단지 공사 JDC의 사후 대책 아쉽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제주시 월평동에 추진 중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과 사업' 부지와 인접한 영주고등학교 구성원들이 제기한 공사 소음과 진동, 대형 공사 차량의 통학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다.

아쉬운 것은 JDC의 대응이다. 학교가 대형 공사장과 맞닿아 있는 만큼 2024년부터 2028년까지 4년 이상 장기간 이어지는 공사 과정에서 소음과 진동, 통학 안전 문제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 그럼에도 학부모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들의 교육권과 안전권, 건 강권 침해 우려를 제기한 뒤에야 학교 운영을 제한하고 임시 보행로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비산먼지와 소음 측정 결과를 학교 측

과 공유하겠다는 약속도 내놔다. 하지만 착공 이전에 검토해야 할 인접 학교 학생들의 통학 안전과 학습 환경을 살피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임시 보행로는 사후 대책이 아니라 공사 계획 단계에서부터 확보돼야 할 필수 안전시설이다.

결국 이번 논란은 우리 사회의 안전관리 체계가 여전히 '예방'보다 '사후 대응'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

JDC는 이번 사안을 일회성 민원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도 공사가 2년 정도 더 이어지는 만큼 학교와 상시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통학 안전과 소음·진동·비산먼지 저감 대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학생 구성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사장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공기업의 책무다.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진주진공 문빈(향년 95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라이오나 우선 지면을 빌어 인사를 드립니다.

2026년 8월 7일

아들 **진영수** 며느리 **송정인**
영진 강승미
딸 **진영희** 사위 **위창남**
영신 고성효
영나 배정용

자본감소 공고

당 회사는 2026년 8월 6일 주주전원서면결의로 자본의 총액 금675,000,000원 중 금300,000,000원을 감소하여 자본의 총액을 금375,000,000원으로 하고 그 방법으로 현재 각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총수 67,500주 중 30,000주의 주식을 주당 10,000원에 임의소각하여 발행주식총수를 37,500주로 감소할 것을 결의하였음.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게재일 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 제출할 것을 이에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6일

무일건설 주식회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516로 147, 2층(통평동)
대표이사 **고연실**

제주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골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8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소지 **선율2리 웅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묘지후손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를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이내 가능합니다.”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묘지 전문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연구소**
주소장 ☎010-7305-7819 **제주도택이**

칼라강판 조립식 건물 녹슬고 비새는 곳에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82-3644**
010-4690-36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가족묘지·문중묘지 허가 대행

별초대행·각종제초작업

묘지관리·묘지보수

방묘·산담·잔디작업

평장·이장·화장·무연고 전문

가족묘지 & 산소에 새, 석새, 잡풀 죽는 약 보유중

장례지도사 **강 봉 호**
010-5254-6661
「진주강씨 제주도종회 이사
사)한국역술인협회 제주지부 이사
관음사 영락원 관리이사」

하나 장 의 사
616-08-85402